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橘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Tel:0985-32-8457 Fax:0985-32-8512 Homepage:https://www.mif.or.jp E-mail:miyainfo@mif.or.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국제플라자 휴관일 안내

2023년 3월 21일(화) 공휴일로 인해 폐관합니다.



일본어 연습 모임 ※무료·자유 참가

◇일 시:

[수요일] 10:30~11:30 3/1, 3/8, 3/15, 3/22, 3/29

[금요일] 10:30~11:30 3/3, 3/10, 3/17, 2/24, 3/31

[토요일] 14:30~15:30 3/4, 3/11, 3/18, 3/25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문 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이 본 미야자키' 순회 전시회 ~노베오카 편~ ※무료

미야자키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미야자키」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 63점을 전시합니다.

◇전시 기간: 3월 3일(금) ~ 3월 17일(금)

◇전시 장소: 노베오카역 앞 복합시설 엔크로스

◇전시 작품: 사진, 회화, 서예, 수공예

◇신청·문의: 노베오카시 국제교류추진실

Tel:0982-22-7006



국제교류원과의 담소회♪ ※무료·사전 신청 필요

★영국에서 온 에이리 씨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일본어&영어)

◇일 시: ①3월 3일(금) 15:00~16:00

②3월 24일(금) 15:00~16:00



◇마 감: ①2월 28일(화) ②3월 22일(수)

★싱가포르에서 온 유딩 씨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일 시: ①3월 14일(화) 15:00~16:00 (일본어&중국어)

②3월 14일(화) 18:00~19:00 (일본어&영어)

◇마 감: ①3월 9일(목) ②3월 9일(목)

★한국에서 온 해정 씨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일본어&한국어)

◇일 시: ①3월 23일(목) 15:00~16:00

②3월 30일(목) 15:00~16:00



◇마 감: ①3월 18일(토) ②3월 25일(토)

※②는 학생이 대상입니다.초등학생은 보호자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미야자키 국제플라자

◇정 원: 각 4명(참여 횟수가 적은 사람을 우선한 선착순)

※신청은 전화, 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카운터 자원봉사자 모집

현내재주의 18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국제플라자 업무를 도와주실 카운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3/4(토) 까지 신청바랍니다. ※국적은 관계없으나, 간단한 일본어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에 한합니다.

◇활동기간: 2023년 4/7(금)~9/30(토)

◇활동일시: 화요일~토요일 중 주1회

※매주 같은 요일, 시간대에 활동하시게 됩니다.

①10:15~12:45 ②13:00~15:30

◇내 용: 방문객 대응, 도서 대여와 반환 수속, 문서발송 보조, 도서·자료정리, 재활용 우표의 정리와 발송 등

◇그 외: 교통비, 사례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은 당협회가 부담하며, 카리노

미야자키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주차권을 드립니다.

◇마 감: 3월4일(토)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히나타 일본어 나비를 개설했습니다!

'히나타 일본어 나비'는 미야자키현 내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주민과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고 싶은 일본인 주민을 위한 포털 사이트입니다.각 시정촌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본어 강좌나 학습 지원자 양성 강좌 등의 활동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부디 활용해 주세요.

<https://hinatanihongo.mif.or.jp/korean/>



◇문 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자원봉사자 소개

※사전 신청 필요·무료



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귀국자 등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께 당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어 자원봉사자를 소개합니다. 학습장소, 시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끼리 정하시면 됩니다.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도서 코너의 소개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의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에는 도서 코너가 있어, 1인당 최대 2권을 2주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공생에 관한 도서를 비롯한, 영어·중국어·한국어 등의 외국어도서와 일본어능력시험 대비 교재 등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플라자랑 같이 설치되어있는 교류 스페이스에서 영자 신문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용해 주세요.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의

Tel: 0985-32-8457 Email: miyainfo@mif.or.jp

개관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 : 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스태프의 한마디

타이베이시의 옆 동네, 신베이시 에는 역에서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미얀마 거리가 있습니다. '화우신 거리'라는 거리명으로, 미얀마 요리와 원난 산족, 태국 요리 이외에도 동남아시아의 식자재 전문점이 늘어서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90년대에 노동자 부족의 대책으로 '남향정책'이란 이름의 정책을 세워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거리에는 특히 미얀마인의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어 다양한 이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국적 중 베트남 국적의 인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미야자키시, 에비노시와 미야코노조시에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식자재 전문점이 생겨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보는 것, 일상에서 만나는 외국인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은 조금은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사는 일원으로 교류를 넓히는 계기으로써, 간단한 인사와 같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보지 않으실래요?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외국인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인연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스태프 U)



찬조회원 모집!

연회비:2,000엔 단체:10,000엔



찬조회원이 되시면...

- 매달 발행하고 있는 「국제플라자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광고지 「South Wind」를 보내드립니다.
- 협회가 개최하는 강좌에 우선 참가 가능합니다.
- 협회가 개최하는 강좌의 참가비가 할인됩니다.
- 단체 찬조는 협회 홈페이지 에서 링크가 가능합니다.

◇문의 : (公財)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로부터의 안내문

온라인(Zoom) 상담 ※무료·사전 신청 필요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센터에서는, 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Zoom)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 하단의 ①~④를 기재 해, (support@mif.or.jp)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①이름
- ②이메일 주소
- ③상담하고 싶은 날짜/시간,
- ④상담하고 싶은 것 (육아, 노동, 학교/교육, 의료, 이혼, 일본어 학습, 재류 자격 등)

◇상담 접수: 화요일부터 토요일의 (오전) 10:30~12:00,
(오후) 14:00~17:00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무

◇신청·문의: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Tel:0985-41-5901 Fax:0985-41-5902

E-mail:support@mif.or.jp



3월의 이벤트

이벤트	개최일시	장 소	문의처
제9회 마쓰리 미야자키	3월 4일(토) 11:00~18:00	다카치호 도리 AMU플라자 미야자키 주변 미야자키시	MRT 마쓰리 미야자키 실행 위원회 0985-27-5532
다카나베성터 벚꽃 축제	3월 26일(일) 10:00~16:00	마이즈루 공원 다카나베정	다카나베정 관광협회 0983-22-5588

테게테게 미야자키 라이프

<볼링 대회>



국제교류원
양해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에서 운동을 잘할 거 같다고 많이 하시는데, 실은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체육일 정도로 운동을 정말 못합니다. 따라서, 볼링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현청의 볼링 대회에 신청하게 될 줄은...

하지만 시간은 쏠살같이 지나고, 대회가 1개월 후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대표로서 부끄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반차를 내고 매주 수요일의 볼링 교실에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은 레인 가장자리로만 가고, 주변 회원들은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치는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는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눅 들 한국의 대표가 아니죠! 집에서는 볼링 자세를 계속 연습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혼자서 30게임을 하는 등, 교실에 다니면서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교실의 회원분들로부터의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 속에, 엄지손가락에 생긴 물집도 오른쪽 어깨의 근육통도 전혀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회 당일 제 점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승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평균 90점을 낼 수 있었습니다! 첫날 20점이었던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엄청난 발전이지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노력은 정말로 배신하지 않네요!

